

애플 3조 투자...전남광주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시동’

당초보다 2조 늘려 생산시설 확충...2000명 일자리 창출
AI·고성능컴퓨팅용 첨단 패키징...2027년부터 양산 목표
특별시·장성군 폐수처리 협력...기반시설·인허가 뒷받침

애플테크놀로지코리아가 광주공장에 3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증설에 나서면서 서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본격 가동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았다.

당초보다 투자 규모를 세 배로 늘려 인공지능(AI)·고성능컴퓨팅(HPC)용 첨단 패키징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약 2000명의 신규 고용을 추진하면서 전남 광주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애플테크놀로지코리아는 19일 오전 광주공장에서 첨단 반도체 신규 제조라인 착공식을 열고 올해부터 2031년까지 총 3조원을 투자하는 증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진안 애플코리아 대표이사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교육감, 이만우 산업통상부 산업성장실장, 안도길 국회의원, 양진석 광주경영자총협 회장,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투자는 지난 6월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서 발표한 광주공장 투자계획을 확대한 것이다. 당시 제시한 1조원에서 2조원을 추가 투입하고, 고용 규모도 1000여명에서 2000여명으로 늘렸다.

광주특별시는 이번 투자가 국내 외국 인투자기업의 단일 투자로는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 청년들을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첨단 반도체 분야의 생산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애플은 첨단 패키징 수요 증가에 대응해 투자 규모를 키우고 투자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새 공장은 2027년 하반기 2개동, 2028년 상반기 2개동을 각각 완공하고 양산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다. 생산 제품은 AI·고성능컴퓨팅용 ‘첨단 패키징’ 제품이다.

‘첨단 패키징’은 서로 다른 반도체 칩을 쌓고 연결해 성능과 전력 효율을 높이는 후공정 기술이다.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복잡한 연산을 수행해야 하는 AI 데이터센터와 슈퍼컴퓨터 등에 활용된다. 반도체 회로 미세화가 물리적 한계에 가까워지면서 첨단 패키징은 AI 반도체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증설은 이 같은 시장 변화에 맞춰 광주사업장의 생산 역량을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기존 투자 발표에 더해 공장 건설과 단계별 양산 일정까지 구체화되면서 지역 반도체 투자가 실행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북구 애플테크놀로지코리아 광주공장에서 열린 첨단 반도체 신규 제조라인 착공식에서 이진안 대표가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특히 향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맞물려 지역 산업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반도체를 제조하는 팹과 칩의 성능·효율을 높이는 후공정 생산시설이 함께 확충되면 전남광주에 반도체 산업이 뿌리내리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해외 생산거점과의 투자 유치 경쟁 속에서 애플이 국내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는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애플테크놀로지는 지난해 약 9조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전 세계 8개국에서 20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 법인인 애플코리아

는 송도·부평·광주 등 3개 사업장에서 8400여명이 근무하며 연간 5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대규모 투자를 실제 생산으로 연결하기 위한 기반시설 지원도 추진되고 있다. 광주특별시는 기업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운수·하수·전력 등 핵심 기반시설 지원 방안과 인허가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협의해 왔다.

지난달에는 장성군과 협력해 공장 증설에 따른 폐수처리 방안을 마련했다. 애플 코리아로부터 증설분의 폐수처리 지원 요청을 받은 특별시는 장성공공폐수처리장 연계 처리 방안을 장성군과 협의했다. 장

성군이 이를 수용하면서 기업 요청에 이를 만에 '반도체 폐수처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특별시는 이를 시·군 경계를 넘어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한 통합 행정의 사례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공장 증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에 대응하고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만우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은 “오늘 착공은 서남권 반도체 투자가 계획에서 현장으로 옮겨가는 첫 신호이자, 글로벌 기업이 대한민국과 광주의 미래를 믿고 내린 결정”이라며 “AI 시대 반도체 경쟁

력을 좌우하는 첨단 패키징 공장이 광주에 들어서는 만큼 반도체 생태계가 서남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광주특별시장장은 “애플코리아의 과감한 투자와 제조라인 대규모 증설은 전남광주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첫 실행이자, 전남광주가 대한민국 반도체의 새로운 중심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공장 증설과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상생 ‘실적 채우기’ 도마

한전 지역상생권 구매 5년간 ‘0원’...구내식당 휴무 금요일 집중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한 에너지 공공기관들의 지역상생이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형식적인 실적 관리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전력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실적은 5년간 전무했고, 지역상생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구내식당 휴무는 금요일에 집중된 데다 지역인재 채용도 예외규정으로 의무채용 대상이 줄면서 전체 신규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법정 의무비율과 큰 차이를 보였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진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에너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질의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자료를 보면 2021~2025년 한전·전력거래소·한전KPS·한전KDN 등 나주혁신도시 소재 4개 공공기관의 온누리상품권 구매액은 총 346억6314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지역사랑상품권 구매액은 8488만원으로, 온누리상품권 구매액의 약 0.24%에 그쳤다.

특히 한전은 온누리상품권을 255억 7846만원어치 구매했지만 지역사랑상품권 구매실적은 없었다.

지역상생 활성화를 위한 구내식당 휴무제의 운영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언급 이후 3월 공공기관에 월 4회 이상 점심시간 구내식당 휴무를 권고했다.

그러나 한전·한전KPS·한전KDN은 금요일, 전력거래소는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휴무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인재 채용에서도 의무비율 달성과 실제 채용 비중 사이에 격차가 드러났다.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은 의무채용 적용 대상 인원의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아야 한다.

한전은 최근 5년간 이 비율을 모두 달성했지만, 전체 신규채용 3383명 가운데 지역인재는 466명으로 13.8%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신규채용 988명 중 지역인재는 162명으로 16.4%였다.

이는 전체 신규채용 인원이 아닌 예외규정을 제외한 인원을 기준으로 의무비율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경력직·연구직·소규모 채용 분야 등에 적용되는 예외규정으로 전체 채용 규모의 절반가량이 의무채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의 본래 목적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며 “이전 공공기관들이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상생과 지역인재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정부·SK하이닉스, 반도체 협력사에 2조원 지원

호황 소부장으로 확산...산업장관 “5조원 이상 확대”

정부가 SK하이닉스와 손잡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에 2조원 규모의 보증 지원에 나선다.

반도체 대기업이 누리는 호황이 소부장 중소·중견기업까지 확산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경기 용인의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홍보관에서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노경 SK하이닉스 대표이사(CEO)와 한국무역보험공사,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소부장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SK하이닉스와 4대 시중은행이 1000억원을 출연하면, 무역보험공사가 출연금의 20배 규모인 2조원 규모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해 대출 문턱을 낮추는 방식이다. SK하이닉스가 추천한 협력사는 대출 한도 확대와 우대 금리 혜택(최대 2.5%포인트 인하)을 받을 수 있다.

또 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증료 부담이 줄어들고, 보증 기간은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반도체가 올해 1~3분기 수출의 42%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해 최대 보증 한도는 다른 산업보다 50% 높게 책정했다.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은 정부가 추진하는 ‘상생 무역금융’의 하나다.

앞서 정부는 자동차·조선·철강 분야에서 총 2조4000억원 규모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여기에 반도체를 추가한 것으로, 이번 보증은 단일 기업 협력 기준으로 최대 규모다.

연합뉴스

박셀바이오, 다발골수종 치료제 전임상 성과 공개

항암면역치료제 개발기업 박셀바이오가 다발골수종 치료제의 전임상 연구 성과를 국제 학술무대에서 공개한다.

박셀바이오는 오는 23~27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유럽종양학회(ESMO) 2026에서 CAR-MIL 치료제 ‘VCB-1201’의 전임상 연구 결과를 포스터로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VCB-1201은 환자의 골수에서 얻은 면역세포인 골수침윤림프구(MIL)에 암세포를 찾아 공격하는 카메라 항원 수용체(CAR)를 결합한 치료제다. 다발골수종 세포에서 많이 나타나는 BCMA를 표적으로 한다. 채택된 초록에 따르면 VCB-1201은 기존 말초혈액 유래 CAR-T보다 다발골수종 세포에 대한 항암 활성이 높

았고, 동물실험에서도 체내에서 더 오래 유지됐다. CAR의 표적 기능과 MIL 고유의 암세포 인식 능력이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포 생산 가능성도 확인했다. 제한된 초기 세포를 약 100~120배 증식해 최종적으로 약 7~10억개를 확보했으며, 증식 이후에도 주요 면역세포 특성과 항암 활성이 유지됐다.

이제중 박셀바이오 대표는 “CAR의 암세포 표적 기능과 MIL 고유의 항암 기능을 함께 활용할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연구를 지속해 다발골수종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발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현대차 ‘모빌리티 플레이그라운드 시즌 2’ 성료

시승·기술 체험 프로그램

문화 체험형 행사로 확대

현대차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경기도 화성시 한국자동차연구원 주행시험장에서 진행된 ‘2026 현대 모빌리티 플레이그라운드 시즌2’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현대 모빌리티 플레이그라운드’는 자동차를 사랑하는 고객들이 현대차·제네시스의 다양한 차량과 기술,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고객 참여형 브랜드 체험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자동차 인플루언서와 구독자, 현대차·제네시스 동호회원 등 약 750명이 참여했다. 행사 첫날에는 자동차 인플루언서 11개 채널과 구독자 약 350명



현대차는 최근 경기도 화성시 한국자동차연구원 주행시험장에서 진행한 ‘2026 현대 모빌리티 플레이그라운드 시즌2’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 참여했으며, 둘째 날에는 현대차·제네시스 전 차종 동호회원 약 400명이 참석해 차량을 직접 체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처음 개최된 시즌 1이 차량 체험과 인플루언서·구독자 간 교류에 중점을 두었다면, 시즌 2는 단순한 차량 체험

했다.

참가자들은 현대차·제네시스 전 차종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물론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플레오스(PLEOS)와 기어 후진 보조 시스템(MRA) 등 현대차의 최신 기술을 체험했다. 또한 블루멤버스 포인트 연계 미션과 애프터마켓 옴므 체험 등 고객 서비스 프로그램도 함께 경험했다.

현대차는 참가자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차량 성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고속주행 및 조향 시승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참가자들은 제네시스와 N 브랜드 차량 등을 활용해 일반 도로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주행 성능을 체험했다.

또 차량 기술을 보다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기어 후진 보조 시스템(MRA)을 활용한 미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플레오스 기반의 상황 미션을 수행하며 현대차의 최신 기술을 직접 체득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